

안정적 인구 유입 기반 마련

무주군,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본격화… 2026년 8월 준공 예정

무주군이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안성면 공정리 2995-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무주의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주군은 오는 2026년 8월 10일 준공일까지 대지면적 8,863㎡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3개 동을 조성(총사업비 56억 원)할 계획이다.

이곳에 주거시설 16세대와 작은 도서관(99㎡), 농기계 창고(38㎡), 텃밭(1,049㎡), 주차장(16면) 등이 자리를 잡는다.

조성 후에는 귀농·귀촌 체험·작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착지원 거점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11일 해당 현장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 조감도

무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준공까지 안전하고 질 높은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은 2023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그해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심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인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숲가꾸기 사업 완료

산림기능 활성화 증진 추진

진안군은 산림의 기능 회복과 건강 한 숲 조성을 위한 2025년 숲가꾸기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목재수확→조림사업→숲가꾸기 사업과 다시 목재 수확을 이어지는 산림 선순환 체제의 핵심 과정이다.

이 과정을 산림의 기능별, 수목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 시킨다. 진안군은 올해 총사업비 30억5,7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해 1,840ha의 산림(조림지풀베기 1,236ha, 어린나무가꾸기 423ha, 큰나무가꾸기 111ha, 공익림기능증진 70ha)에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정제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림목의 활착과 생육 발달을 도와 건강한 산림자원 순



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26년도에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은 조림지 1,163ha, 어린나무가꾸기 288ha, 큰나무가꾸기 48ha, 산물수집 48ha, 산불피해 예방 50ha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 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서에 전북비엔날레 장수전 개최

장수군은 세계서에 전북비엔날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시 프로그램 ‘장수전’을 오는 16일까지 장수한누리전당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라는 주제 아래 장수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 서예가 40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서예의 깊은 내공과 예술적 감성을 선보인다.

문자 예술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 내



면과 정신이 깃든 작가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서예 작품을 통해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전통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전시작들은 한글과 한자 등 다양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힘 있는 필획과 섬세한 먹빛의 조화가 어우러져 장수의 정취와 작가들의 예술적 감성을 담아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지역의 정서와 전통이 서예예술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역민들의 따뜻한 정서를 한자 위에 담아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운장산에 내려앉은 가을의 붉은 물결 진안군에 자리한 운장산에 깊은 가을이 물들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진안의 깊은 산세와 어우러진 단풍빛이 한 폭의 풍경을 연출한다. 운장산은 노령산맥의 주봉으로 동쪽으로 이어져 북두봉, 구봉산이 자리하며, 중봉(운장대 1,126m), 동봉(1,133m), 서봉(1,122m) 세 봉우리가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양파 기계화 사업 ‘호응’

농가 일손 부족 해소·운영비 절감 등 위해 연말까지 실시

장수군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농업기계 장기임대)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 기계화를 제고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목반들은 기존의 수작업 중심 재배방식을 탈피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계 정식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파의 파종부터 정식까지 기존 방식 대비 작업시간은 65%, 인건비는 약 67%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계 정식은 손 정식보다 균일한 깊이로 심어져 뿌리 손상이 적고 활착이 빠르며, 구의 크기가 일정해 상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품질 향상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운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정부보급종 벼 ‘해담쌀’ 수매 완료

진안군은 지난 10일 정부보급종 벼인 ‘해담쌀’ 수매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백운면 석덕리 일원에 벼 보급종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생산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와 기술지도를 지원했다.

올해 채종 단지에는 계약재배 11농가가 참여해 14.1ha 면적에서 총 85톤의 해담벼를 생산했으며, 전년보다 많



은 60톤을 수매했다. 수매된 종지는 내년 전북자치도 각 시군 농가에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가회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6회 읍·면을 순회하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에는 노인돌봄사업 178명, 게이트볼강사파견사업 22명, 경로당관리사업 305명 총 50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노인돌봄사업 및 게이트볼강사파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다음달 12월까지(11개월), 경로당관리사업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11개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소방차페레이드 화재예방캠페인 실시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25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 페레이드와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차 페레이드와 화재 예방 캠페인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하고, 자율적인 화재 안전 문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주소방서 현장대응단, 무주 119안전센터, 무주구조대 등 소방력은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무주군 일대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 페레이드를 진행했다. 페레이드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안내하며 무주를 내 주요 도로(무주반딧불시장 → 무주군청 → 무주중학교 등) 약 3.5km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소방차 페레이드가 종료된 이후에는 무주반딧불시장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이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불조심 강조의 달 시행 취지를 널리 알리고,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 안전 문화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